

보도시점 2026. 9. 8.(화) 석간 < 2026. 9. 8.(화) 06:00 >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확산을 견인할 ‘K-수출전략품목’ 혁신 기업 선정

-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소비재 분야 188개사 선정
- 글로벌 유통기업 협업 맞춤형 해외진출 프로그램 지원, 수출바우처 등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을 통해 국가대표 K-브랜드 품목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8일(화) 2026년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지원대상으로 18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K-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은 K-컬처 열풍 등에 힘입어 전 세계 곳곳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뷰티 등 K-브랜드(소비재) 분야 혁신 제품들을 엄선해 글로벌 일류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처음으로 뷰티와 푸드 분야 30개 기업의 제품들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패션과 라이프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0개 기업 제품들을 추가로 선정해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소비재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을 모집했으며, 총 983개 기업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소비자와 글로벌 유통 전문가들이 혁신성, 글로벌 확장 가능성, 현지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188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기업들 중 뷰티 분야에서는 발효 콩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콩에센스’ 제품으로 클린 뷰티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파켓(브랜드명 : 믹순)’이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이다. ‘순수 원료 중심의 스킨케어’라는 철학에 기반해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유럽을 넘어 중남미까지 진출 지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라이프 분야에서는 뛰어난 가성비와 다양한 제품군으로 국내 디퓨저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해외 60개국 이상에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가정용 방향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코코도르(브랜드명 : 코코도르)’가 눈길을 끈다. 독자적인 향료 배합 기술과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 공장 자동화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홈 프래그런스 시장도 평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국내 글로벌 유통기업 등 협력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또한, K-브랜드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우선 참여,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해외 전시회·상담회 참가 등 정부 수출 지원사업 우대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 올리브영(뷰티), 신세계백화점(뷰티, 패션), 무신사(패션), G마켓(라이프), 롯데마트(푸드)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뷰티를 중심으로 한 K-소비재가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기업의 제품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기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재경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김영철	(044-204-7505)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글로벌도약팀	책임자	주무관	전대호	(044-204-7507)
			팀 장	장인경	(02-6678-9710)
		담당자	주 임	박지훈	(02-6678-9715)